

미용성형외과에 대한 대학신입생들의 인지도 조사

안기영¹ · 장재훈¹ · 박대환¹ · 신임희²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¹, 통계학교실²

The Cognition Study of the Freshman in College About Aesthetic Plastic Surgery

Ki Young Ahn, M.D.¹, Jae Hoon Chang, M.D.¹,
Dae Hwan Park, M.D.¹, Im Hee Shin, Ph.D.²

¹Department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²Biomedical Statistics, College of Medicine, Daegu Catholic University, Daegu, Korea

Recently, as standard of living has been improving and awareness of well-being has been generalized, people's desire pursuing beauty has been spreading across the world. We made a survey with 184 graduating high school girls in December 2003. According to the survey, 57.6% of them knew about plastic surgery, 41.8% of them knew well about whole field of plastic surgery, and 60.3% of them wanted to have an aesthetic surgery. 44.6% got an information about an aesthetic surgery from general public and 27.6% from TV, respectively. Regarding the use of aesthetic surgery, 59.8% answered that it makes them more confident about themselves rather than just to be beautiful. 78.8% of them have complaints about how they look. Finally, as the personal desire to make themselves look beautiful to others increases, so does the interest in aesthetic plastic surgery. In conclusion, as the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we still need more effort for the correct cognition and awareness of plastic surgery among general public.

Key Words: Cognition study, Aesthetic surgery, Plastic surgery

Received December 2, 2004

Revised December 20, 2004

Address Correspondence: Ki Young Ahn, M.D., Department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College of Medicine, Daegu Catholic University, 3056-6 Daemyung 4-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053) 650-4585 / Fax: 053) 622-5668 / E-mail: kyahn@cu.ac.kr

* 본 논문은 제 22차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I. 서론

최근 경제적·문화적으로 생활수준이 윤택해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well-being의 개념이 일반화되어 가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의 외모에 관한 관심이 치료에 목적을 둔 재건성형뿐만 아니라 신체의 외모를 개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에 환자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용성형수술은 단순히 외모를 교정하는 목적이 전부가 아닌 외모 콤플렉스로 인한 환자의 정신적 손상까지도 교정하여, 환자로 하여금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동시에 충족시키기 때문에 경쟁력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¹

본 교실에서는 외모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대학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형외과와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인식도 및 자신의 외모에 대한 가치관 등을 설문조사하고,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성형외과, 특히 미용성형외과의 발전 및 나아갈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II. 재료 및 방법

가. 대상

2003년 12월 5일부터 2003년 12월 12일까지 약 8일간 대구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참석한 11개 여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방법

조사방법은 대상자를 어떤 회장에 모이게 하여 그 장소에서 질문에 대답을 받는 방법인 집합조사법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에게 5명의 면접요원(의과대학생 및 성형외과 전공의)이 설문지를 배포하고 대상자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가 배포되었으나, 응

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184부만을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항목에는 성별, 나이 등의 대상자의 일반적인 개인 정보, 성형외과 및 미용성형외과에 대한 인지도,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외모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 등을 포함시켰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EXCEL과 통계 패키지 SPSS for Window Ver. 10.0(SPSS Inc., 2002)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형외과 및 미용성형외과에 대한 인지도와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의 조사항목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외모에 대한 인식의 조사항목은 빈도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순위상관관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설문지 184부에 기재된 개인신상정보를 분석한 결과, 설문대상자 184명 모두 여성이었으며, 연령도 모두 18세에서 19세였다.

가. 성형외과에 대한 인지도

'성형외과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예'가 57.6%, '아니오'가 26.1%로써 비교적 성형외과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용성형외과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예'가 41.3%, '아니오'가 41.3%로 동등한 비율로 나타났다(Table I).

Table I. Result of Cognition Study about Plastic Surgery(I)

Item	Yes	No	No-answer	Total
Do you understand what plastic surgery is?	106(57.6%)	48(26.1%)	30(16.3%)	184(100%)
Do you understand what aesthetic plastic surgery is?	76(41.3%)	76(41.3%)	32(17.4%)	184(100%)

Table II. Result of Cognition Study about Plastic Surgery(II)

Item	Number	Percent(%)
What does plastic surgery practice for patients?		
Only an aesthetic surgery like double eyelid, nasal augmentation etc.	35	19.1
Only a reconstructive surgery like burn, hand reconstruction, treatment of skin cancer etc.	5	2.7
Practice operation when dermatologic surgery is needed	2	1.1
Include all of the above	77	41.8
Exclude all of the above	3	1.6
No-answer	62	33.7
Do you have any wishes improving your appearance with aesthetic surgery?		
Yes	111	60.3
No	37	20.1
Not interest	36	19.6
If you want to have aesthetic surgery, where do you want?		
Private clinic, Not board-certified physician	2	1.8
Private clinic, Board-certified plastic surgeon	79	71.2
Board-certified plastic surgeon at general hospital	30	27.0
If less expensive, I don't care	0	0
From where do you get an information about aesthetic surgery?		
General public	82	44.6
TV	51	27.6
Newspaper	30	16.3
Internet	15	8.2
Magazine	4	2.2
Other	2	1.1

'성형외과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쌍꺼풀, 코높임 등의 미용성형수술만을 하는 곳'이라는 응답이 19.1%, '화상, 수부재건, 피부암 치료 등을 하는 곳'이라는 응답이 2.7%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신체 중 미용성형수술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예'가 60.3%, '아니오'가 20.1%로 조사되었다. '어디에서 받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71.2%에서 '개업성형외과 전문의'라고 대답하여 '종합병원 전문의'나 '개업성형외과 일반의'에 비해 크게 앞질렀으며, '미용성형수술 정보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는 주변 사람과 TV가 각각 44.6%와 27.6%로 가장 많았고 신문, 인터넷, 잡지 순으로 나타났다(Table II).

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을 빈도 분석한 결과, '얼굴 중에서 가장 성형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순

47.8%, 코 30.6%, 턱 윤곽수술 10.8% 순으로 조사되었고, '몸매 중에서 가장 성형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는 허벅지 28.8%, 가슴 21.6%, 종아리 18.9% 순으로 분석되었다.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184명 중 2명인 1%만이 '예'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이 받은 미용성형수술은 모두 쌍꺼풀수술이었다.

'미용성형수술만으로 당신이 원하던 모습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는 71.2%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이유'라는 질문에는 단순히 '예뻐지기 위해서'가 25%에서 나타났으며 '컴플렉스 극복을 통한 자신감의 회복'이라는 대답이 59.8%로 가장 많았다(Table III).

다. 외모에 대한 인식

외모에 대한 인식은 빈도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순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자신의 외모

Table III. Result of Cognition Study about Aesthetic Plastic Surgery

Item	Number	Percent(%)
Which part of your face do you want to improve with an aesthetic surgery?		
Eye	53	47.8
Nose	34	30.6
Jaw	12	10.8
Forehead	4	3.6
Lip	5	4.5
Other	3	2.7
Which part of your body do you want to improve with an aesthetic surgery?		
Abdomen	16	14.4
Thigh	32	28.8
chest	24	21.6
calves	21	18.9
forearm	8	4.3
Other	10	9.0
Do you have ever gotten an aesthetic surgery?		
Yes	2	1.1
No	170	92.3
I do not know	12	5.5
Do you believe that aesthetic surgery make you be happy?		
Yes	42	22.8
No	131	71.2
I do not know	11	6.0
In your opinion, what is important reason that people have an aesthetic surgery?		
To gain confidence by overcoming the inferiority	110	59.8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21	11.4
To be beautiful	46	25.0
Others	6	3.3
No answer	1	0.5

Table IV. Result of Cognition Study about External Appearance (I)

	Number	Percent(%)
Do you have an experience to feel an unhappiness in your appearance?		
Yes	145	78.8
No	36	19.6
I do not know	3	1.6
Do you think better looking persons are treated more favorably than others?		
Absolutely	28	15.2
More than	123	66.9
Not particularly	23	12.5
Not at all	7	3.8
I do not know	3	1.6

Table V. Result of Cognition Study about External Appearance (II)

Which situation a better external appearance is more important in?				
	Very important	Important	Not at all	No Answer
Marriage	74(40.2%)	98(53.3%)	9(4.9%)	3(1.6%)
Employment	119(64.7%)	56(30.4%)	6(3.3%)	3(1.6%)
Social life	112(60.9%)	66(35.9%)	3(1.6%)	3(1.6%)

에 불만을 가져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8.8%에서 ‘예’라고 대답하였고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보다 성공하는가?’라는 물음에 있어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대답이 16.3%로써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군보다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Table IV). ‘잘생긴 외모가 각 항목, 결혼 및 취업, 그리고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가 취업, 사회생활에서 각각 64.7%와 60.9%로 나타나 결혼의 40.2%보다 높게 조사되었다(Table V).

‘연애와 결혼에 있어 가장 먼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확률 0.05로 유의하게 나타나, 연애와 결혼에서 성격, 외모, 직업, 집안환경의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애에서는 성격, 직업, 집안환경, 외모 순이었고 결혼의 경우에는 성격, 직업, 집안환경, 외모 순으로 두 항목 모두 성격과 직업이 높게, 외모와 집안 환경이 낮게 나타났다(Table VI, VII).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 조건’에 관한 조사항목은 대상자가 응답한 성공조건 순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순위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평가자의 순위결정방식은 일치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이 항목에 대한 순위는 1순위에서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노

력이 1위이며, 2순위에서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난 좋은 성격이 2위이며, 3순위에서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난 외모가 3위, 4순위에서 소질, 집안환경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5순위에서 집안환경이 43.9%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 4위에는 소질, 5위에는 집안환경으로 조사되었다(Table VIII).

IV. 고 찰

미국의 경우, 1992년에 41만여명이 미용성형수술을 받았고, 2001년에는 1992년에 비해 미용성형수술 건수가 4.64배로 증가하였다고 하나,² 국내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통계 및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미용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대한 정신의학적인 접근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결과 또한 일반인들에 비해 신경학적 경향 및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1,3,5} 그러나 요즘에는 일반 대중들에게 매우 보편화되어 가는 경향으로 최근 국내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학생의 52.5%가 미용성형수술을 받았고, 82.1%가 미용성형수술을 받고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미용성형수술이 많이 행해지는 이유로 Rhorich⁷는 인구의 증가와 미용성형수술 자체의 안전성 증가, 더 잘생겨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의 증가, 미용성형수술의 기술적 발전 등을 들었다. 뿐만

Table VI. A Standard of Judgement in Cases of the Love and the Marriage (I)

	Score	Standard of judgment in love number (%)	Standard of judgment in marriage number (%)
Personality	1	1(0.5)	2(1.1)
	2	2(1.1)	1(0.5)
	3	13(7.1)	13(7.1)
	4	44(23.9)	33(17.9)
	5	111(60.3)	115(62.5)
	Missing value	13(7.1)	20(10.9)
Appearance	1	3(1.6)	3(1.6)
	2	8(4.3)	13(7.1)
	3	48(26.1)	54(29.3)
	4	48(26.1)	53(28.8)
	5	68(37.0)	39(21.2)
	Missing value	9(4.9)	22(12.0)
Profession	1	2(1.1)	2(1.1)
	2	0(0.0)	3(1.6)
	3	32(17.4)	13(7.1)
	4	56(30.4)	31(16.8)
	5	72(39.1)	120(65.2)
	Missing value	22(12.0)	15(8.2)
Environment	1	9(4.9)	4(2.2)
	2	17(9.2)	9(4.9)
	3	55(29.9)	35(19.0)
	4	48(26.1)	48(26.1)
	5	32(17.4)	61(33.2)
	Missing value	23(12.5)	27(14.7)

Table VII. A Standard of Judgement in Cases of the Love and the Marriage (II)

Standard of judgment		Mean (S.D)	F-value (p-value)	Post verification (Scheffe M.)
Standard of judgment in love	Personality	4.53(0.74)	12.555(0.000) df=3	Appearance < Profession, Environment < Personality
	Appearance	3.97(1.00)		
	Profession	4.21(0.84)		
	Environment	4.21(0.84)		
Standard of judgment in marriage	Personality	4.57(0.77)	38.647(0.000) df=3	Appearance < Environment < Profession < Personality
	Appearance	3.69(0.99)		
	Profession	4.56(0.81)		
	Environment	3.97(1.04)		

Table VIII. Important Factors in a Successful Life

Value point when marriage	Ranking n(%)				
	1	2	3	4	5
Effort	68(40.5)	47(28.0)	25(14.9)	20(11.9)	8(4.8)
Good personality	65(39.6)	47(28.7)	22(13.4)	20(12.2)	10(6.1)
Appearance	44(27.8)	44(27.8)	49(31.0)	15(9.5)	6(3.8)
Talent	32(20.0)	34(21.3)	40(25.0)	30(18.8)	24(15.0)
Environment	11(7.0)	14(8.9)	24(15.3)	39(24.8)	69(43.9)

아니라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인들에게 있어 성형외과 및 외모에 대한 인식의 조사에 대한 국내보고 논문 역시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 반해 실제로 일반인들이 과연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가치관 및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이 미용성형외과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되어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교실 관찰 대상은 앞으로 미용성형외과 영역에서 환자로써의 가능성을 보이는 대학 신입생을 중심으로 연구한 바 기존의 일반인 대상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형외과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는 성형외과 및 미용성형외과에 대해 안다고 대답한 사람이 각각 57.6%와 41.3%로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일반인들에게 있어 미용성형과 재건성형 등, 성형외과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용성형외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41.3%로 적게 나타난 것에 비해, ‘신체 중 성형수술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나’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6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미용성형외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반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이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성형외과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쌍꺼풀, 코높임 등의 미용성형수술만을 하는 곳’이라는 응답이 ‘화상, 수부재건, 피부암 치료 등을 하는 곳’이라는 대답보다 훨씬 높아 성형외과에서 다루는 분야가 재건성형보다는 미용성형을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훨씬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사람, TV, 신문, 인터넷, 잡지의 순으로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한다고 대답한 것은 인터넷 시대이지만 보수적인 지방 대도시라는 지역적 문제와 아직은 잡지책을 즐겨볼 수 없는 고등학생 신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용성형수술을 희망하는 신체부위는 얼굴 중에서는 눈, 코 부위, 몸매에서는 허벅지, 가슴, 종아리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여기에서 기존의 연구결과⁸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는 대상자들의 연령대가 서로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여러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미용성형수술 환자들에게서 실시한 다면적 인성검사 등의 조사에서 정신증 내지 인격장애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정상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있었고 이런 원인이 미용성형수술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였는데¹³⁻⁵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뻐지기’ 위해서라기보다 ‘콤플렉스 극복 등을 통한 자신감의

회복이 주된 이유’라고 대답했고, 이는 미용성형수술의 대중화, 보편화되어 가는 하나의 단적인 이유로 보여진다.

‘미용성형수술만으로 당신이 원하던 모습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는 71.2%에서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 응답자의 약 1%만이 미용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은 조사대상의 연령대가 아직 고등학생 신분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연령대에 따른 미용성형수술의 유무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서울지역에서, 20대에서, 그리고 예체능에 관련된 학과 및 여성에서 미용성형수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요즘에는 지역편차가 줄어들고, 더 넓은 연령대에서 미용성형수술에의 관심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외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78.8%에서 자신의 외모에 불만을 가져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최근 국내의 한 지역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상 체중으로 판명된 여고생 가운데 살이 찘다거나 비만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69.6%에 달하였다.⁸ 이처럼 젊은 여성 특히 여고생들에게서 자기 신체에 대한 이미지 왜곡이 심하였다.

응답자의 약 82.1%에서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보다 성공한다고 대답하여 앞으로 자신의 사회생활에 있어 외모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잘생긴 외모가 취업, 그리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결혼보다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하여 실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외모를 다른 항목에 비해 좀더 낮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주된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단순히 외모중시 풍조보다는 보다 건전한 사회생활 또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미용성형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Test)은 두개 이상의 모집단의 차에 관한 분석을 하기 위해 실시되는데, 여기서는 미팅 때와 선불 때라는 두 가지 상황에서 성격, 외모, 직업, 집안환경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Scheffe method를 통한 사후 검정을 실시하여 두 상황에서 성격, 외모, 직업, 집안환경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미팅 때는 성격, 직업, 집안환경, 외모 순이었고 선 때는 성격, 직업, 집안환경, 외모 순으로 두 항목 모두 외모에 가장 낮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타 항목에 비해 외모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대상 모두 여자인 점을 감안할 때 남성에게 비교적 외모의 필요성을 낮게 두는 사회 풍조에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에 대한 순위 상관관계에서 노력과 좋은 성격

이 외모, 소질, 집안 환경의 순위보다 월등히 높게 관찰되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의 결과는 비록 한정된 좁은 지역의 일정한 연령대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지만 이 조사와 더불어 좀 더 넓은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 충분한 설문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인들의 미용성형외과에 대한 인지도 및 외모에 대한 인식을 아는 것이 앞으로 미용성형외과의 외모에 대한 올바른 인식, 나아가 홍보 및 환자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V. 결 론

대학신입생에 있어 아직 성형외과 및 미용성형외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약 60.3%에서 미용성형수술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대답하여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거부감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접하는 곳은 주변사람, TV나 신문, 인터넷, 잡지순으로 조사되었고, 미용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장소에 대하여는 71.2%에서 개업 성형외과 전문의로 종합병원이나 일반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콤플렉스 극복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취업, 사회생활 등에 있어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데 잘생긴 외모가 도움이 될 거라는 대답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미용성형수술만으로 당신이 원하던 모습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가 71.2%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날로 증가하면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나 왜곡된 국내의료보험 하에서 비보험 미용성형수술의 장점 등으로 성형외과와 타과 간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성형외과 및 미용성형수술의 제대로 된 인식 및 이미지의 정립을 위해 보다 많은 홍보 및 학회 차원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REFERENCES

1. Bang SI, Kim HJ, Song YH, Mun GH, Lee TS, Chung IW, Lee SI, Shin CJ, Hong JB, Chi KH, Han MK, Lee WJ, Yu JH: The psychiatr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smetic surgery patients and the effect of cosmetic surgery. *Korean Soc Aesthetic Plast Surg* 7: 1, 2001
2. The 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2001 National Plastic Surgery Statistics. <http://www.plasticsurgery.org>
3.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search=1&n=200404290223>
4. Rohrich RJ: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cosmetic surgery procedures: a look at statistics in plastic surgery. *Plast Reconstr Surg* 106: 1363, 2000
5.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search=1&n=200406230385>
6. Dunofsky M: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women who undergo single and multiple cosmetic surgeries. *Ann Plast Surg* 39: 223, 1997
7. Yoon KC, Lee YH, Kim ZS: Study on the psychosocial aspects of plastic surgery patients by MMPI test. *J Korean Soc Plast Reconstr Surg* 11: 35, 1984
8. Han SJ, Ahn JH, Baik MH, Kim SH, Min DH: The psychological aspect in plastic surgery patients (I). *J Korean Soc Plast Reconstr Surg* 18: 1015, 1991